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독자를 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수동적 존재로 여기는 독서 교육 이론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에서는 독서를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글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의미 구성에 활용하는 경험과 지식을 ‘배경지식’이라 하는데, 이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내용 배경지식은 글의 화제나 주제와 관련해 이미 독자가 지니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고, 형식 배경지식은 글의 구조나 담화 관습 등 글의 구성과 표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다.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에 의하면 글의 의미 구성을 효과적으로 하는 독자는 읽기 전에 배경지식을 활용해 글에 담긴 내용이나 글의 구조 등을 예측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상적 정보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글을 읽을 때 새로운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독서 목적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읽는 중에는 배경지식을 활용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한다. 독자는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배경지식을 수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에 저장하여 이후 다른 독서를 할 때 배경지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글을 모두 읽은 후에는 배경지식을 활용해 정보를 조리 있게 재구성하는데, 그렇게 재구성된 정보는 오랫동안 기억된다.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가들은 배경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글과 관련해 연상한 내용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글의 화제나 주제와 관련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떠올린 후, 이것들을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 상하위 개념으로 위계화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독자가 글과 관련해 자신의 인지를 미리 조직화하면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글의 내용도 정확히 구조화할 수 있다.

한편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가들은 연구 초기에는 같은 글을 읽더라도 독자마다 구성되는 의미가 다른 이유를 독자가 지닌 배경지식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독자의 독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더 많은 배경지식을 쌓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실제 독서 상황에서 배경지식이 오히려 정확한 독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가들은 배경지식의 양 이외에 ㉠ 독서 능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의미는 독자와 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 ② 배경지식은 읽기 전, 중, 후의 모든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 ③ 같은 글을 읽더라도 독자마다 구성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 ④ 독서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정보는 다른 글을 읽을 때에 배경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⑤ 독서를 할 때 배경지식을 잘못 활용하면 독서 목적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2. 다음은 독서 활동을 하는 학생 생각의 일부이다. 이를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의 관점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읽을 책이 『서양 건축사의 이해』야. 제목에 ‘○○사’란 말이 들어간 글은 대개 내용이 시간순으로 구성되니, 이 책도 그렇겠군. 이제 서양 건축과 관련한 것들을 떠올려 보자. ‘로마네스크, 고딕, 샤프트르 대성당…….’ 이 중에 ‘로마네스크’와 ‘고딕’은 서양 건축 양식의 하위 개념에 배치하고, 샤프트르 대성당은 로마네스크의 하위 개념에 배치하자. 이제 본문을 읽어 보자. “고딕 양식은 이전 양식에 비해 화려하며, 대표 건축물은 샤프트르 대성당이다.” 아, 샤프트르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이 아니라 고딕 양식이었구나. 꼭 기억해 두자. 음, 이전 양식에 비해 화려하다는 말로 볼 때 고딕 양식이 로마네스크 양식보다 화려하겠군. 또 고딕 양식의 종교 건축물은 대부분 색유리를 활용했다고 했으니, 책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고딕 양식인 아미앵 대성당에도 색유리가 활용되었겠군.

- ① 책 본문에 있는 ‘이전 양식에 비해 화려하며’를 통해 로마네스크 양식의 유행 시기를 파악한 것은 배경지식을 활용해 독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조리 있게 재구성한 것이로군.
- ② 책을 읽으며 샤프트르 대성당이 고딕 양식이라는 정보를 확인하여 기억하겠다는 것은 독서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배경지식을 수정한 것이로군.
- ③ 서양 건축과 관련하여 떠올린 로마네스크와 고딕을 서양 건축 양식의 하위 개념에 배치한 것은 읽을 글과 관련한 자신의 인지를 미리 조직화한 것이로군.
- ④ 색유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미앵 대성당의 특징에 대해 추측한 것은 내용 배경지식을 활용해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한 것이로군.
- ⑤ 책 제목에 있는 ‘건축사’라는 말을 바탕으로 읽을 글의 전체 구성을 추측한 것은 형식 배경지식을 활용한 것이로군.

3.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독서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종종 읽을 글과 관련 없는 배경지식까지 활성화하여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그렇게 되면 독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독서 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을 심화하게 된다.

- ① 독서 능력이 뛰어난 독자는 읽을 글과 관련해 자신이 지닌 배경지식의 양을 점검한다.
- ② 독서 능력은 독서 목적에 맞는 배경지식을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 ③ 독서 능력은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분위기를 조성해야 발휘될 수 있다.
- ④ 독서 능력을 기르려면 되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 ⑤ 독서 능력은 독서 방식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향상된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떠한 법 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함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법경제학은 효율을 그 잣대로 사용한다. 효율이란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증가하느냐의 여부인데, 후생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의미한다.

효율은 사후적 효율과 사전적 효율로 나눌 수 있다. 사후적 효율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얻는다는 의미이고, 사전적 효율은 당사자의 사전적 유인책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절도를 예로 들어 보자. 갑과 을로만 이루어진 사회에서 갑의 물건을 을이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훔쳐서 사용했다. 물건은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되어,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해당 물건에 대한 갑과 을의 후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의 후생이 100원이고 을의 후생이 80원이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20원의 후생 감소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법이 절도를 금지하는 이유이다. 절도의 문제점은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절도가 허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예측된다. 먼저 을의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이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의 입장에서는 절도 방지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 이러한 근로 의욕의 저하와 절도 방지 비용 지출은 사회적 후생 증가에 ㉡ 기여하지 못한다. 즉 사전적 효율 관점에서 볼 때, 절도가 허용되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유인책이 생긴다.

사후적 효율의 관점에서 법 제도가 형성된 대표적인 사례로 도산법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채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도산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적 채권 추심*은 모두 금지되고 채권자는 오직 도산 절차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적 채권 추심이 허용된다면 누구나 먼저 채권 추심을 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손상되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등 사회 전체 후생의 감소가 발생한다. 법 제도가 사전적 효율의 관점에 기초하여 성립된 경우도 있다. 지식 재산권 관련 법에 의하면 소설이나 노래를 표절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데 복제하더라도 원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복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면 복제를 할수록 사회적으로는 후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창작과 관련하여 지식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창작 유인책이 ㉢ 저하되어 애초에 창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 관련 법은 사전적 효율의 증진을 위해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 채권 추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 내는 일.

(나)

통계학에서 제1종 오류란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는 것이고, 제2종 오류란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한다.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이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유인책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이 1,000원이고 각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따른 주의 비용, 사고 확률 등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여기서 총 사고 비용은 주의 비용과 기대 사고 비용

을 더한 값이다.

사고 방지 주의 (수준)	주의 비용 (원)	사고 확률 (%)	기대 사고 비용 (원)	총 사고 비용 (원)
0	0	6	60	60
1	30	2	20	50
2	60	1	10	70

법은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주의를 1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각각 20%의 확률로 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해자도 알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가해자는 어느 수준의 주의를 선택할까? 가해자가 0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면 가해자는 80% 확률로 기대 사고 비용 6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이 둘을 곱한 값인 48원이다. 가해자가 주의를 1수준으로 높이면, 추가적으로 주의 비용 30원이 들지만, 기대 사고 비용 20원을 부담할 확률이 20%에 불과하므로 4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34원이다. 2수준의 주의의 경우, 주의 비용 60원에 20% 확률로 기대 사고 비용 1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62원이다. 결국 법원의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효율적인 1수준의 주의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항상 ㉣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확률이 모두 40%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가해자로서는 0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다.

위 사례에서 ㉤ 주목할 점은 가해자에게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관한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1종 오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제2종 오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 위 계산 과정을 따르면,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비용이 동일할 경우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것이 법경제학의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법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유인책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법 제도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실태를, (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법 제도가 바람직하게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③ (가), (나) 모두 경제학적 측면에서 법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④ (가), (나) 모두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경제학적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바람직한 법 제도가 실제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5.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도산법에서 개별적 채권 추심을 인정하면 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 ② (가): 물건을 훔친 을이 갑보다 높은 후생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은 법이 절도를 금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 ③ (가): 법이 표절을 금지하는 이유는 창작자의 지식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④ (나): 법원의 과실 판단 오류는 가해자의 사고 방지 주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⑤ (나):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여 과실 없음을 판결하는 것은 제2종 오류이다.

6.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와 B로만 이루어진 사회가 있다. A가 B와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A는 0원의 이익을 얻었고, B는 1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계약법은 A가 B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100원의 손해는 A가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B가 부담한다. 만약 A가 손해의 일부만 배상한다면 100원의 손해를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 단, A와 B는 동일한 금액에 대해 동일한 후생을 갖는다.

- ① 100원의 손해를 A가 일부라도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지면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은 100원보다 적어지겠군.
- ② 100원의 손해를 A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지면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A에게는 계약을 덜 파기하려는 유인책이 생기겠군.
- ③ 계약법이 어떻게 정해지든 A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회 전체의 후생은 계약법의 영향을 받지 않겠군.
- ④ 계약법이 A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쳐 계약이 이행됐다면 계약법은 사회 전체의 후생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군.
- ⑤ 계약법이 A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계약법은 계약 미이행 사건 자체를 방지하지 못하는군.

7. (가)의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가해자에게 적정한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관한 유인책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라면 가해자에게는 주의 비용 30원을 부담하려는 유인책이 발생한다.
- ③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 미만이라면 가해자에게는 주의 비용 60원을 부담하려는 유인책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40%라면 가해자에게는 주의 비용을 들여서 사고 확률을 낮추려는 유인책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에서 40%로 높아지게 된다면 가해자에게는 법원이 정한 적정 주의 수준에 따라 행동할 유인책이 발생하지 않는다.

8. ㉠을 <보기>처럼 설명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가해자의 사고 방지 주의 수준을 ㉠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0수준의 기대 사고 비용인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을 높이든가 1수준의 기대 사고 비용인 20원에 곱해지는 확률을 낮추면 된다.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고, 2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를 범할 확률이다. 당연히 큰 금액에 곱해지는 확률의 영향이 더 크므로 오류 확률 감소 비용이 동일하다면 제1종 오류 확률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	㉢	㉣
①	1수준	제1종 오류	제1종 오류
②	1수준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③	1수준	제2종 오류	제1종 오류
④	2수준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⑤	2수준	제2종 오류	제1종 오류

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한데 합함.
- ② ㉡: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 ③ ㉢: 정도, 수준, 능률 따위가 떨어져 낮아짐.
- ④ ㉣: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짐.
- ⑤ ㉣: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또는 그 시선.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논리 실증주의에서는 어떠한 언명이 기존 이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 관찰을 통해 참과 거짓으로 확실히 결정될 수 있으면 과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편 언명이 단칭 언명의 누적을 통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단칭 언명은 ㉠ 특정 시공간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을 언급한 것이고, 보편 언명은 단칭 언명들을 일반화한 것으로 과학 이론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산에 담기면 붉어진다.'라는 단칭 언명이 예외 없이 관찰된다면 '모든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에 담기면 붉어진다.'라는 보편 언명이 과학 이론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 이러한 생각은 어떤 과학 이론이 지금까지 누적된 단칭 언명들을 통해 참으로 보장될지라도, 앞으로 보편 언명으로서 확실히 참이 될 수는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예컨대 지금까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산에 담겼을 때 항상 붉어졌다는 관찰이, 앞으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산에 담기면 붉어질 것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의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단칭 언명이 누적될수록 과학 이론이 참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 완화된 입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단칭 언명들로 일반화된 언명이 ㉣ 계속 참으로 남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비관적 합리주의는 논리 실증주의와 달리 단칭 언명이 기존 과학 이론과의 연관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참인 단칭 언명을 통해 가설이나 과학 이론이 참임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참인 단칭 언명을 통해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예컨대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산에 담기면 그 시험지가 붉어지지 않는다.’라는 단칭 언명으로부터 ‘모든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에 담기면 붉어진다.’라는 보편 언명이 거짓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합리주의에서는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반증 가능성을 제시하고, 관찰에 의해 반증될 수 있는 언명만을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언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기존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의 관찰로부터 새로운 과학 이론이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때 기존 과학 이론은 즉시 버려지고 기존 과학 이론을 수정하여 쓸 수는 없다. 과학자들은 기존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발견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새로 수립하고, 가설을 ㉠ 시험할 수 있는 사례를 떠올린다. 만약 그러한 사례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그 가설은 잠정적 과학 이론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과학이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으나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과학 이론은 잠정적이라는 것이다. 과학 이론은 거듭된 반증의 시도로부터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으나 언제라도 반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과학 현실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어 기존 과학 이론이 폐기되어야 함에도 기존 과학 이론을 폐기하지 않고 보완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 비판적 합리주의는 실제 과학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10.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의문이 아닌 것은?

- ① 비판적 합리주의에서는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 ② 논리 실증주의에서는 비판적 합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 ③ 비판적 합리주의에서는 과학이 어떻게 참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는가?
- ④ 비판적 합리주의에서는 새로운 과학 이론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는가?
- ⑤ 논리 실증주의에서는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언명의 조건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11. 윗글의 [비판적 합리주의]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물질의 존재와 무관하게 공간은 항상 같은 상태라는 과학 이론이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던 시기에 아인슈타인은 이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새로운 가설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태양처럼 질량이 큰 물체는 주변의 공간을 왜곡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후 에딩턴은 일식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별의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일식 때의 별빛 위치가 일식이 아닐 때의 별빛 위치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에딩턴은 이 별빛은 태양에 의해 왜곡된 공간을 따라 휘며 진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 ① 아인슈타인의 가설은 거듭된 반증의 시도로부터 꾸준히 살아남는다면 참된 진리에 도달하겠군.

- ② 태양처럼 질량이 큰 물체에 의해 공간이 왜곡된다는 아인슈타인의 가설이 제시되자마자 기존 과학 이론은 즉시 버려졌겠군.
- ③ 일식 때 별빛이 휘지 않고 진행함을 보여 주는 현상이 또 발견되어야 아인슈타인의 가설은 잠정적 과학 이론의 지위를 부여받겠군.
- ④ 물질의 존재와 무관하게 공간은 항상 같은 상태라는 과학 이론은 에딩턴에 의해 확실히 반증되었기에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이론이라고 할 수 없겠군.
- ⑤ 에딩턴의 사진 분석은 아인슈타인의 가설이 참된 진리에 도달했음을 알게 할 수는 없지만 기존 과학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하겠군.

1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객관적 관찰을 통해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 ② ㉡: 단칭 언명들을 일반화한 보편 언명이 과학 이론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 ③ ㉢: 참인 단칭 언명이 누적될수록 보편 언명이 참이 될 확률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 ④ ㉣: 지금의 과학 이론이 미래의 관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문제이다.
- ⑤ ㉤: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가설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1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학자들은 정확한 관찰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가설을 과학 이론으로 인정하려 한다.
- ② 과학자들은 어떤 가설이 새로운 과학 이론으로 제시되면 해당 가설의 옳고 그름을 하나하나 점검하려 한다.
- ③ 과학자들은 기존 과학 이론에 기대어 가설을 세우기보다는 직접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려 한다.
- ④ 과학자들은 기존 과학 이론으로 풀이될 수 없는 현상이 관찰되더라도 기존 이론을 폐기하지 않고 수정하려 한다.
- ⑤ 과학자들은 어떤 가설이 새로운 과학 이론의 지위를 부여받았을지라도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고 본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거리는 두 개의 지점이 공간적으로 ㉠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적 개념이다. 2차원 평면에 두 지점이 (0, 0)과 (1, 1)에 있다면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길이 $\sqrt{2}$ 가 된다. 한편 거리는 추상적인 성질이나 가치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기능은 유지되지만,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거리의 개념은 디지털 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데이터 간의 거리는 추상적 거리의 개념으로, 데이터가 표현하려는 정보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다르다. 00, 11과 같은 2비트의 데이터가 2진수로 표현된 수치를 가리킨다면 00과 11의 거리는 두 수치의 차이 $|(0 \times 2^1 + 0 \times 2^0) - (1 \times 2^1 + 1 \times 2^0)| = 3$ 이 된다.

그런데 2비트의 데이터 00이나 11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부호라면 거리는 두 부호가 구별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해밍 거리는 부호의 관점에서 부호들 간의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해밍 거리는 길이가 같은 두 부호를 비교하였을 때 두 부호의 같은 자리에 있는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세 개의 부호 00, 01, 11이 있다면 00과 01의 해밍 거리는 1이고, 00과 11의 해밍 거리는 2이다. 이때 부호들 간의 최소 해밍 거리는 1이고, 최대 해밍 거리는 2이다.

부호들 간의 최소 해밍 거리를 충분히 멀게 한다면 통신이나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여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송하려는 1비트의 원시 부호 0과 1이 있고 부호 단위로 송수신한다고 가정해 보자. 송신자가 1을 보낸다면 수신자는 0이나 1 중 하나를 받게 될 것이고, 송신자가 어떤 데이터를 보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부호들 간의 최소 해밍 거리는 1이다. 0이나 1을 송수신하는 대신 원시 부호(x) 뒤에 확인 부호(p)를 덧붙여 xp에 해당하는 2비트 단위의 전송 부호를 만들어 보자. ① 전송 부호는 고정된 원시 부호에 확인 부호를 덧붙이고, 확인 부호는 원시 부호에 대한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만든다는 규칙을 정한다면 전송 부호는 00과 11이 된다. 만일 수신자가 01이나 10 중 하나를 받은 경우 전송 부호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오류가 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할 수는 없다.

00이나 11을 송수신하는 대신 p와 동일한 규칙의 확인 부호(q)를 한 번 더 덧붙여 xpq에 해당하는 3비트 단위의 전송 부호 000과 111 중 하나를 송수신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 자리의 오류만 있다고 가정하면 수신자가 001, 010, 100, 011, 101, 110 중 하나를 받은 경우

[A] 오류 발생 자리를 검출하여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10의 경우 x인 1에 대해 p와 q는 각각 1이 되어야 1의 개수가 짝수가 되지만 q가 0이므로 1의 개수가 홀수이다. 따라서 오류 발생 자리를 검출하여 110을 111로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송 부호 간의 최소 해밍 거리가 3이어서 한 자리의 오류를 검출하여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시 부호에 확인 부호를 충분히 덧붙이면 전송 부호의 길이는 길어지지만 전송 부호들 간의 최소 해밍 거리도 함께 멀어져 오류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오류를 검출하여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일한 정보를 보낼 때 덧붙이는 확인 부호의 개수가 늘어나면 보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 전송 효율이 낮아진다.

1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진수로 표현된 수치를 가리키는 데이터들 간의 거리는 수치 간의 차로 표현될 수 있다.
- ② 추상적인 성질이나 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로 거리의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 ③ 물리적 개념에서의 거리는 두 지점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 ④ 00과 11의 2진수 수치의 차이와 해밍 거리는 같은 값으로 측정된다.
- ⑤ 데이터가 표현하려는 정보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15. [A]와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확인 부호가 오류 발생 자리에 대한 정보가 되도록 규칙을 정하면 전송 부호에서 한 자리 오류가 발생했을 때 수정이 가능하다. 확인 부호를 검사하여 p에 오류가 있으면 **p 자리**를 1로, 오류가 없으면 0으로 표현한다. 같은 방식으로 q에 오류가 있으면 **q 자리**를 1로, 오류가 없으면 0으로 표현한다. 0과 1로 표현된 **p 자리** **q 자리**를 계산하면 한 자리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알아낼 수 있다.

송신	수신	오류		계산	오류 발생 자리
		규칙			
		p 자리	q 자리		
000	000	0	0	$0 \times 2^1 + 0 \times 2^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10		0	$1 \times 2^1 + 0 \times 2^0$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0	0	1	$0 \times 2^1 + 1 \times 2^0$	
	011	1	1	$1 \times 2^1 + 1 \times 2^0$	
⋮	⋮	⋮	⋮	⋮	⋮

- ① 송신자는 전송 부호 간의 해밍 거리가 3이 될 수 있도록 0은 000으로, 1은 111로 보내는 것이겠군.
- ② 수신자가 010을 받았다면 **p 자리**의 오류를 1로 표현하여 000으로 판단하겠군.
- ③ 수신자가 110이나 101을 받았다면 수신한 부호에 있는 0을 1로 수정하여 모두 111로 판단하겠군.
- ④ 수신자가 011을 받았다면 **p 자리**와 **q 자리** 모두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므로 두 자리의 오류를 수정하겠군.
- ⑤ 수신자가 111을 받았다면 **p 자리**와 **q 자리**의 오류를 모두 0으로 표현하여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군.

1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송 부호들 간의 최소 해밍 거리를 멀게 하면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은 늘어난다.
- ② 전송 부호들 간의 최소 해밍 거리가 1이면 전송 과정에서의 오류 검출이 가능하다.
- ③ 두 전송 부호의 같은 자리에 같은 문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밍 거리는 멀어진다.
- ④ 덧붙이는 확인 부호가 많아지면 전송 부호들 간의 최대 해밍 거리는 가까워진다.
- ⑤ 전송 부호들 간의 최소 해밍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전송 효율은 낮아진다.

17.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식당은 본관과 조금 떨어져 있는 별관이다.
- ② 해가 떨어지자 새는 보금자리로 돌아갔다.
- ③ 그들의 실력은 평균보다 떨어지는 편이다.
- ④ 상처가 나서 생긴 딱지가 아물어 떨어졌다.
- ⑤ 물건을 팔면 본전을 빼고 만 원이 떨어진다.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룻밤 ㉠ 찬바람에 눈이 왔나 서리 왔나
 어찌하여 온 세상이 백옥경이 되었는가
 동창이 다 밝거늘 수정렴을 걷어 놓고
 거문고 비껴 안아 ㉡ 봉황곡을 연주하니
 소리마다 그윽히 맑아 태공에 들어가니
 파사 ㉢ 계수나무 아래 옥토끼도 돌아본다
 유리 호박주를 가득 부어 권하니
 유정한 향아도 잔 밑에 비치었다
 청광을 머금으니 폐부에 흘러들어
 호호한 흥중이 아니 비친 데가 없다
 옷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아뢰려 하였더니
심술궂은 뜯구름이 어디서 와 가리는가
 천지가 깜깜하여 백물을 다 못 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네
 먼 봉우리 반쪽 끝에 옛 빛이 비치는 듯
 구름 사이로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 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뜰가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수나무 그림자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이 나를 좇아 시름한다
 성긴 발을 드리우고 동방에 혼자 앉아
 ㉣ 금작경* 닦아 내어 벽 위에 걸어 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모르도다
 비단 부채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푸른 대나무로 천 길의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고자
 ㉤ 장공은 만 리요 이 몸은 진토니
 쓸쓸한 이내 뜻이 생각하니 허사로다
 가뜩이나 시름 많은데 긴 밤은 어떠한가
 전전반측하여 다시금 생각하니
영허 소장*이 천지에 무궁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 본색이 어디 가리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키어 **명월 불 날 기다리노라**
 - 최현, 「명월음」 -

*금작경: 황금 까치를 조각한 거울.
 *영허 소장: 달이 찼다가 기울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김.

(나)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이는구나
 최령한 오인도 직립 불의* 어렵거늘
 만고에 끈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구나 <제1수>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람 서리에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 <제2수>
 한마디 말도 없는 바위 사귄 일도 없지마는
 고모 진태*를 벗 삼아 앉았으니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벼를 사귄 줄 모르노라 <제3수>
 먹줄 없이 생긴 바위 어느 법도를 알라마는
 높고도 곧으니 귀하게 보이는구나
 애닦다 가히 사람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랴 <제4수>

탁연 직립*하니 본받을 직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짜기에 알 사람 있어 찾아오라
 힘을 다해 오르면 기이한 구경거리 많으니라 <제5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최령한 오인도 직립 불의: 가장 신령스런 우리도 의지하지 않고 곳
 곳이 서기.
 *고모 진태: 옛 그대로의 모습.
 *탁연 직립: 높이 곧게 섬.

(다)

어린 염소 세 마리가 달달거리며 보도 위로 주인을 따라간다.
 염소는 다리가 짧다. 주인이 느릿느릿 놀 양으로 쇠 걸음을
 걸으면 염소는 **종종걸음**으로 빨리 따라가야 한다. 두 마리는
 긴 줄로 목을 매어 주인의 뒷짐 진 손에 쥐여 가고 한 마리는
 목도 안 매고 따로 떨어져 있건만 서로 떨어질세라 열심히 따
 라간다. 마치 어린애들이 엄마를 놓칠까 봐, 혹은 길을 잃을까
 봐 부지런히 따라가듯.

(중략)

주인의 뒤를 따라 석양에 보도 위를 걸어가는 어린 염소의
 검은 모습은 슬프다. 짧은 다리에 뒤뚱거리며, 굽이 높아 전족
 한 청녀*의 쫓기는 종종걸음이다. 조그만 몸집이 달달거리며 추
 위 타는 어린애 모습이다. 이상스럽게도 위로 들린 짧은 꼬리
 밑에 감추지 못한 연하고 검푸른 향문이 가졌다. 수염이라기에
 는 너무나 양정한 **턱 밑의 귀여운 수염**, 그리고 게다가 이따금
 씩 어린애 목소리로 우는 **그 울음**, 조물주는 동물을 점지할
 때, 이런 슬픈 유형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페이터는 일찍이 사람들에게 “무한한 물상 가운데 네가 향수
 한 부분이 어떻게 작고, 무한한 시간 가운데 네게 허여된 시간
 이 어떻게 짧고, **운명** 앞에 네 존재가 어떻게 미소(微小)한 것
 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기꺼이 운명의 직녀, 클로우드우의 베
 틀에 몸을 맡기고, 여신이 너를 실 삼아 어떤 베를 짜든 마음
 을 쓰지 말라.” 했다. 이 염소는 충실한 페이터의 사도다. 그리
 고 그는 또 “네 **생명이 속절없고**, 너의 **직무**, 너의 **경영**이 허무
 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치열한** 불길이 열과 빛으로 변화시키듯
 하잘것없는 속사(俗事)나마 그것을 네 ㉠ **본성**에 맞도록 동화
 시키기까지는 머물러 있으라.” 했다. **염소**가 그 주인의 뒤를 충
 충히 따르듯, 그리고 주인이 저를 흥정하고 있는 동안은 주인
 옆에 온순하게 충실히 기다리고 서 있듯, 그리고 **길**가에 버려
 있는 무청 시래기 옆에 세워 두면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
 듯, 그리고 다시 끌고 가면 먹던 것을 놓고 **총총히 따라가듯**.

이 세 마리의 어린 염소는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돌아가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인가, 혹은 그중의 한 마리는
 숲 속으로 들어가고, 두 마리만이 가게 될 것인가, 또는 어느
 것이 팔려 가다가 팔려서 꺾질을 벗기고, 어느 것이 남아서 외
 롭게 황혼의 거리를 타달거리고 갈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
 른다. 염소 자신도, 끌고 가는 주인도, 아무도 모른다. 염소를
 끌고 팔려 다니는 **저 주인**은 또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
 은 알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염소가 지나간**
그 보도 위로 걸어오는 것이다.

- 윤오영, 「염소」 -

*전족한 청녀: 발을 작게 하려고 발가락을 감은 청나라 여인.

1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과 반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대상의 순차적인 변모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 ㉠, ㉡을 중심으로 (가), (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을 화자의 정서와 연결하여 '시름 많'음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을 글쓴이의 정서와 연결하여 '생명이 속절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을 자연물과 연결하여 '풍운'의 영속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을 자연 현상과 연결하여 '치열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을 화자의 태도와 연결하여 '단심'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에서는 ㉡을 '염소'의 태도와 연결하여 '운명'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을 시간적 배경과 연결하여 '긴 밤'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을 공간적 배경과 연결하여 '길가'에서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에서는 ㉠을 화자의 상황과 연결하여 '영허 소장'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고, (다)에서는 ㉡을 '염소'의 상황과 연결하여 '직무'와 '경영'에 대한 거부감을 강조하고 있다.

20. (가)의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자연을 완상하는 것을 가로막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도록 이끄는 기능을 한다.
- ③ ㉢은 화자가 처해 있는 비참한 모습을 나타낸다.
- ④ ㉠은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동병상련의 심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다.

21.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 :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감흥은 중장의 화자의 만족감으로 심화된다.
- ② <제2수> :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깨달음은 중장의 화자의 결심을 강화한다.
- ③ <제3수> : 중장에 드러난 화자의 행위는 중장의 화자의 태도로 이어진다.
- ④ <제4수> :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의문은 중장의 화자의 회의감을 유발한다.
- ⑤ <제5수> : 중장에 드러난 화자의 판단은 중장의 화자의 자기반성의 계기로 작용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란의 경험이 바탕이 된 (가)와 (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형상화된 작품이다. (가)는 임금이 피란길에 오른 참담한 현실을 달이 구름에 가려진 상황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선정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바위를 인격화함으로써 바람직한 가치 회복을 희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한다고 한 것을 통해 전란으로 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명월 불 날 기다리노라'라고 한 것을 통해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임금이 선정을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곧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고 '탁연 직립하'다고 한 것을 통해 인간이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품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심술궂은 뜬구름'이 '가리'고 '떼구름 미쳐' 난다고 한 것과 (나)의 '구름 깊은 골짜기'에 '구경거리 많'다고 한 것을 통해 전란으로 인한 참담한 현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라고 한 것과 (나)의 '사람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랴'라고 한 것을 통해 부정적 현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23. <보기>의 ㉠ ~ ㉣와 관련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이 작품에서 작가는 ㉠ 염소의 모습을 묘사하며 염소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고, ㉡ 그 염소에게 일어날 일을 상상하며 염소의 주인에 대해 떠올린 생각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 염소와 그 주인에 대해 사색한 내용을 자신과 결부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순차적 구성은 작가가 사색의 결과를 어떻게 글로 구조화할 것인지 계획한 결과입니다.

- ① ㉠ : 염소의 '종종걸음', '턱 밑의 귀여운 수염', '그 울음' 등을 서술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의 모습을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 : 염소가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듯' 한다고 표현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존재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 ③ ㉢ : 염소의 '내일 아침'에 대해 서술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상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 : '저 주인'의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 언급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 주인의 운명도 염소의 운명처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 : '나'가 '염소가 지나간 그 보도 위로 걸어'온다고 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와 그 주인에 대해 사색한 내용을 자신과 결부시켰음을 알 수 있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얀 박꽃이 오들막*을 덮고
당콩* 너울은 하늘로 하늘로 기어올라도
고향아
여름이 안타깝다 무너진 돌담

[A]

돌 위에 앉았다 섰다
성가스런 하로해가 먼 영에 숨고
소리 없이 생각을 드디는 어둠의 발자취
나는 은혜롭지 못한 밤을 또 부른다

도망하고 싶던 너의 아들
가슴 한구석이 늘 차그웠길래
고향아
돼지굴 같은 방 등잔불은
밤마다 밤새도록 꺼지고 싶지 않았지

[B]

드디어 나는 떠나고야 말았다
곧 얼음 녹아내려도 잔디풀 푸르기 전
마음의 불꽃을 거느리고
멀리로 낫선 곳으로 갔더니라

그러나 너는 보드러운 손을
가슴에 얹은 대로 떼지 않았다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
빗돌처럼 우두커니 거리에 섰을 때
고향아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을
막을 길이 없었다

“돌아오라 나의 아들이아
까치 둥주리 있는
아까시야가 그림지 않느냐
배암장어 구워 먹던 물방앗간이
새잡이 하던 버들방천이
너는 그림지 않나
아롱진 꽃그늘로
나의 아들이아 돌아오라”

[C]

나는 그리워서 모두 그리워
먼 길을 돌아왔다만
버들방천에도 가고 싶지 않고
물방앗간도 보고 싶지 않고
고향아
가슴에 가로누운 가시덤불
돌아온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분다

[D]

이 며칠을 미칠 듯이 살아온 내게
다시 너의 품을 떠날려는 내 귀에
한마디 아까운 말도 속삭이지 말어다오
내겐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이 물결친다

[E]

하얀 것도 붉은 것도
너의 아들 가슴엔 피지 못했다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이용악,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 오들막: 오두막의 함경도 방언.
* 당콩: 강낭콩.

(나)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캔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밝은 칠후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셈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돋움새졌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갯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

* 캔델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석유로 불을 켜서 밝히는 등.

24.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계절감을 주는 이미지와 시적 공간의 황량한 분위기를 결부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B]: 화자의 심정을 과거 고향의 사물에 투영하여 고향에 친밀감을 느끼고자 했던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고향이 화자에게 건넨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그리움을 환기하는 시적 공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D]: 화자의 내면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화자가 고향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공간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5.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칠혹 같은 어둠’과 ‘휘황한 불빛’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험상곳은 금점꾼들’에서 ‘생떼를 쓰는’ ‘아내들’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겨운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멀리 다닐수록’을 ‘많이 보고 들을수록’과 연결하여 이동 범위의 확대가 인식의 성장을 가로막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의 변화를 통해 화자가 경험한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를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로 변형하여 화자가 기억하는 어릴 적 공간의 이미지가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신이 태어나 주로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가 구심점이 되는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의식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려진다. (가)에서는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살던 화자가 자신을 부르는 힘에 이끌려 귀향을 하게 되지만, 고향이 자신이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에서는 바깥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유랑하던 화자가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 준 모성적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화자가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되돌아온 고향이 화자가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는 세계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② (나)에서 화자가 ‘내 땅막’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근원인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의 ‘마음의 불꽃’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아픔을 느꼈음을, (나)의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는 고향을 벗어난 곳에서 화자가 느꼈던 삶의 힘겨움을, (나)의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은 화자가 바깥세상을 떠돌며 빠져 있었던 재미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가)의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은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고향의 부름에 이끌렸음을, (나)의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는 유랑하던 화자가 구심점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원수는 서번과 서달을 물리치고 황성으로 돌아가던 중 단원사에서 모친과 경패 낭자를 상봉한다.

서로 그리워하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모친을 모시고 중당에 좌정하여 서로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때 부인 양씨가 장도를 만지면서 말하였다.

“내가 부친과 너를 생각하여 슬퍼하고 있을 때 어떤 두 여인이 절에 의탁하고자 하였는데, 그 모습과 사정이 나와 비슷하였기에 머리를 깎고 나와 스승과 제자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후원에서 애절하고 원망하는 듯한 울음소리가 나기에 위로하러 갔더니, 옷을 만지면서 슬퍼하고 있더구나. 괴이하게 여겨 물었더니, 낭군의 신표라 하기에 더욱 보자고 하여 받아 보았더니 나의 솜씨였고 너의 옷이었다. 마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웠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진정으로 믿을 만한 표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네 부친이 절강의 장 도사에게 관상을 보이고 나서 생년월일시를 적어 비단 주머니에 넣어 옷깃 속에 넣어 두었던 것이 기억이 났다. 이것을 믿을 만한 표식으로 여겨 사오 년을 서로 아껴 주고 위로해 주며 지냈느니라.”

[A] 이것을 듣고 원수가 모친께 아뢰었다.

“소자도 그때 도적이 데리고 가다가 중도에서 버렸기에 의탁할 곳이 없었는데, 마침 낭자의 부친이 데려다가 사랑하고 아껴 주시고 낭자와 백 년의 가연을 정해 주었습니다. 또 통관이 계시하신 대로 호 씨의 구박을 견디다가 결국

[B] 낭자와 이별하고 동서로 결석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 천행으로 서주의 왕 상서 덕에 의탁하여 왕 상서의 사환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서의 명으로 황성에 갔다가 천행으로 과거를 보아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어 서주에 내려가 왕 상서의 여식과 혼인한 이야기와 황성에 올라가 원천의 딸을 후궁으로 삼은 이야기를 부인과 낭자에게 말씀 드리니 ㉠ 부인과 낭자가 이 말을 듣고 더욱 즐거워하였다.

원수가 다시 아뢰었다.

“천자께서 명하시어 소자를 불러 이르시기를, ‘서번과 서달이 삼십육도 군장과 도모하여 대국을 침범하였노라. 너를 대사마 대원수로 삼으니, 이 사인검을 가지고 정병 팔십만을 조발하여 번국을 소멸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에 소자가 한 번 전장에 나아가 서번과 서달, 삼십육도 군장을 모두 소멸하여 천을 만분의 일이나마 갚고 돌아오다 서천관에 이르러 유숙하고 있을 때, 금산사 화주승이라 하는 노승이 꿈에 나타나 여남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남에 이르렀는데 또 그 도사가 꿈에 나타나 단원사를 찾아가면 절로 부모와 낭자를 만날 것이라 하기에 이리로 온 것입니다.”

[C] 이렇게 그간의 사연을 말씀드리니, ㉡ 부인과 낭자가 이 말을 듣고 더욱 황제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도사의 신기함에 감복하였다.

(중략)

원수는 행군의 여정이 피곤하여 잠깐 졸았는데, 전날 밤중 꿈속에 나타났던 도사가 또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원수는 부친을 눈앞에 두고 어찌 잠만 깊이 자십니까?”

그러고는 문득 사람이 보이지 않거늘, 깨어 보니 남가일몽이었다. ㉢ 마음이 뒤숭숭하였으나 도사의 영감과 신기함은 탄복

할 만하였기에, ‘도사의 은혜를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구나.’ 하면서 혹시라도 부친을 찾을까 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여 각도와 각 읍의 자사와 수령을 모두 청하였다.

자리를 정하고 즐기며 차례로 술잔을 권했는데, 부남은 남방의 대관이었기에 부남 태수가 오른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잔이 두세 번 돌아간 뒤에 부남 태수가 눈을 들어 원수의 거동을 자세히 살펴보니, 선풍도골이어서 천상의 선관이 하강한 듯하였다. 그런데 조금도 즐거워하는 빛이 없었고 차고 있던 ㉠ 장도를 만지면서 슬퍼하는 듯하였다. 이를 보고 ㉡ 부남 태수가 문득 풍운이 생각나 흐느끼며 생각하기를 ‘풍운도 살아 있다면 내가 주었던 장도를 만지면서 저렇듯이 슬퍼하지 않겠는가.’ 하며 자세히 보니 원수의 장도가 풍운에게 채워 주었던 장도와 똑같았다. 이에 마음속으로 너무 놀라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공경을 표하고 원수에게 물었다.

“원수가 차신 장도는 반드시 보검일 듯합니다. 황송하오나 한번 구경하고자 하옵니다.”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오히려 반기면서 장도를 꺼려 주었다. ㉢ 부남 태수가 자세히 보더니, ‘이것은 정녕 자식 풍운의 칼이로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원수가 이에 더욱 이상하게 여겨 물어 말하였다.

“태수는 이 칼을 보시고 어찌 슬퍼하며 흐느끼십니까?”

태수가 아뢰어 말하였다.

“황송하오나 하관이 앞뒤의 내력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 참군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인이신 양 참군의 부친 양 상서께서 대국으로 사신을 갔다가 연왕이 정표로 이 장도를 주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양 상서가 이 장도를 가지고 오셔서 대대로 전하는 물건으로 삼았습니다. 양 상서가 이 장도를 양 참군에게 전하였는데, 양 참군은 후사가 없고 따로 전할 데도 없어서 하관에게 주었습니다. 이 장도 이름은 연평검이니 하관이 매우 아끼던 것입니다. 제가 늦게야 한 아들을 낳았는데 용모가 비범하였기에 행여 단명할까 염려가 되어 절강의 도사에게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열 살 이전에 부모와 이별할 것이라고 하기에 혹 이별하더라도 서로 잊지 않기 위해 장도를 자식에게 채우고 생년월일시를 써 비단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뒤에 난리가 났는데, 하관은 황명을 받아 가달을 치러 경사로 올라갔고, 처 양 씨가 아들을 데리고 집에 있었습니다. 하관이 가달을 평정하고 돌아오니 천자께서 하관에게 부남 태수를 제수하셨습니다. 이에 부남으로 내려올 때 고향에 들렀더니 집은 비었고 처는 간 데가 없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사방으로 찾았으나 종적을 알 수 없어 홀로 부남에 도임하였습니다. 오늘 날 원수가 차신 장도를 보니, 문득 자식이 생각나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 칼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D]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바로 그 주머니에서 ㉣ 생년월일시를 써 둔 유서를 내어 태수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하였다.

“소자가 불초자 풍운이로소이다.”

그러고는 지극히 애통해하니, 태수가 정신을 차리고 그 유서를 받아 보니 과연 자신의 친필이 분명하였다.

- 작자 미상, 「장풍운전」 -

27.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부남 태수는 자신의 부인과 아들의 종적을 알지 못한 채로 부남에 부임했다.
- ② 양 씨는 남자가 자신의 며느리임을 알고 나서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었다.
- ③ 원수가 도적에게 잡혀 있을 때 남자의 부친이 원수를 도적으로부터 구해 주었다.
- ④ 원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주의 왕 상서택에 자신을 의탁했다.
- ⑤ 부남 태수는 원수의 기질과 풍채를 보고 원수가 자신과 닮은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A] ~ [D]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장풍운전」은 가족이 헤어졌다가, 주인공이 입신양명하고 큰 공적을 세우는 데에 힘입어 가족이 다시 만남으로써 가문의 번영을 이루는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이 만나 나누는 대화를 통해 서사가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독자는 이를 통해 인물들이 헤어져 각자 겪은 일들, 인물들이 새롭게 맺은 관계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독자는 인물들이 겪은 일들을 서로 연계하여 사건의 성격이나 전후 사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 ① [A]에서 모친이 자신이 지은 원수의 옷을 낭군의 신표로 간직하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고 했는데, [B]를 통해 원수가 그 여인과 연을 맺은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있어.
- ② [A]에서 원수의 부친이 절강의 장 도사에게 원수의 관상을 보였다고 했는데, [D]를 통해 부친이 원수의 관상을 보인 이유를 알 수 있어.
- ③ [B]에서 원수가 한림학사를 지냈다고 했는데, [C]를 통해 한림학사에서 대사마 대원수가 되어 가문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공적을 세웠음을 알 수 있어.
- ④ [B], [D]를 통해 원수와 부친의 이별이 두 사람에게 시련을 초래했지만 두 사람에게 조력자들을 만나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을 알 수 있어.
- ⑤ [C], [D]를 통해 전쟁이 원수가 가족과 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원수가 가족과 재회하게 되는 노정에 오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어.

29.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들이 연민의 정서를 주고받는 수단이 되고 있다.
- ② ㉡은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과 달리 ㉡은 인물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비현실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④ ㉡과 달리 ㉠은 미래에 인물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 ⑤ ㉠, ㉡은 모두 인물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증표가 되고 있다.

30. ㉠~㉣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와 태도를 추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원수가 한림학사를 제수받은 이후의 행적을 모친과 남자가 긍정적으로 여겼다.
- ② ㉡: 원수의 모친과 남자가 황제와 도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 ③ ㉢: 원수가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도사를 신뢰했다.
- ④ ㉣: 부남 태수가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다.
- ⑤ ㉤: 부남 태수가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확신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폐병을 앓고 있는 현일은 길에서 함께 있는 옛 동료 교사 도영과 제자 병수를 만난다. 병수는 폐병을 앓고 있는 도영이 약으로 쓸 구렁이와 지렁이를 잡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도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일은 병수와 대화를 나눈다.

“하루바빠 하면 뭘 합니까? 학생 생활도 세월 보내는 한 수 단일는지도 모르니까 요행 있는 학비니 할 수만 있으면 오래 학창 생활을 해 보렵니다.”

“음.....”

“학생 생활에만 애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나서기가 무서워서 그러죠.”

“그것이 요새 젊은이들의 생각인가? 혹시 자네만이 그런가?”

“글썩을시다.”

“그런 것이 소위 불안이라는 유행병인가?”

어느덧 이야기가 또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이 현일은 불쾌하였다. 병수를 만나면 젊은이의 청신한 기분을 맛보려니 기대하였던 자기가, 자기 말조차 이렇게 빠져지는* 것이 우울하였다.

“물론 시대적 원인도 크겠지만 자네같이 젊고 무엇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은 ㉠ ‘나만은 그런 유행병에 감염이 안 된다’는 의지와 패기를 가져 볼 수는 없을까?”

이러한 현일의 말에

“제가 불안 병자로 자처하는 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생 말씀같이 쉽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의지나 패기는, 오히려 선생의 신병과 정신적 타격의 반동이 아닐까요?”

하였다.

이렇게 속에 있는 대로 털어놓고 보니 병수는 도리어 쓸쓸하였다. 말이 지나쳤다고 후회되었다.

M학교 시대에 또 각혈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일 선생이 그러한 때마다 ‘개체인 자신이 불행하더라도 그 때문에 결코 인생을 어렵게 보거나 저주할 것은 아니라’고 열성적으로 강조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였고 현일 선생을 더욱 숭배하였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한 희생과 추억과 지금의 자기 태도를 생각할 때 병수는 더욱 쓸쓸하였다. 이런 것이 문학청년다운 자기의 예민한 관찰을 자랑하려는 경박한 것이 아닐까고도 생각되었다.

㉢ 현일은 현일이대로 병수의 말에 아픈 타격을 느낄밖에 없었다. 절망적으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지금까지의 노력 정진 전진 노력으로 싸우며 살아온 자기의 일생이 이뿐이냐 하는 생각에 한 사회인으로 무엇을 해 보겠다는 희망도 야심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세상이 어둡고 인생을 저주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것은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때만은

그것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전부였다. 소크라테스가 아닌 범인의 본능이었다.

그러한 자기의 감정과 본능을 이론적으로 극복하려는 심정으로 수신 시간의 강의는 더욱 열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현일은 병수의 온건치 않은 말이 불쾌하면서도 전연 억측만도 아닌 바에야. 그러나,

“그러나 자네 말대로 내가 절망적이에요, 그 반동으로 의지와 패기를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에게에는 의지와 패기가 필요찮을까? ㉣ 물론 나는 건강으로나 교육자로나 절망적이지만, 자네 같은 사람들이야 왜.”

“결국 용기 문제겠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병수는 용기 없다기보다는 용기를 일으킬 만한 사상과 신념을 붙들지 못하였다는 것이 솔직한 말이 아닐까고 생각하였다.

(중략)

병수가 무엇이든 대답할 사이도 없이 도영의 입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였다.

피가 좀 몇자 기신을 못 차리는 그의 입언저리의 피를 씻으려고 병수는 손수건을 들고 다가왔다. 그것을 본 현일은 병수를 떠밀어 내며 노기를 띤 언성으로 “저리 가라니까” 소리를 지르고 자기 손수건을 내어 도영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얼굴을 씻으며

“이런 더러운 피에 왜 손을 적시려나..... 정신 차리거든 내가 다리구 같게 자넨 가게나.”

병수는 할 수 없이 돌아서 성문으로 들어갔다.

처음같이 피가 솟구쳐 나지는 않지만 그치지 않고 입언저리로 가늘게 흘러내렸다. 도영의 머리를 자기 가슴에 기대어 놓은 현일은 피가 멎을까 하여 자기 수건과 도영의 수건을 모두 적시어 보았으나 끝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돌 위에 옷저고리를 집어 놓은 베개에 도영이를 누이고 정신 차리기를 기다릴밖에 없었다. 성벽 저편으로 해가 기울어서 진한 그림자가 덮이고 바람이 불었다.

아무리 저녁인데 이 여름에 바람이 싫으니..... 나 역시 이 세상과는 벌써 인연이 떨어진 사람이로구나.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현일은 앞가슴에 옷자락을 여미고 송장 같은 도영의 옆에 었다.

절망과 패기. 비관과 낙관. 그 두 가지 정반대의 생각을 번갈아 가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니.

절망과 비관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 뼈를 깎는 듯한 절망에 부대끼다 못하여 애써 빈약하지만 자기의 **철학의 지식을** 끄집어내어 구원한 인생의 발전을 명상해 볼 때에는 **청정한 공기를** 호흡하듯이 상쾌함을 느끼는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자기도 한 짐을 맡았으면 하는 패기도 느껴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등지고 죽어 가는 자신을 생각할 때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절망을 느낄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자기의 세계라면 참고 사는 때까지 살아가리라 하였다. 그러나 또 견딜 수가 없었고 아직 남은 **마음의 탄력**으로 또 상쾌한 명상으로 떠올라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게는 무엇이 남았으랴. 절망인들 남았으랴. 죽어 가는 **폐어**에게 물도 공기도 무슨 소용이랴. 지금 폐어는 **반신(半身)** 물에 잠기고 **반신 바람에** 불리면서도 두 가지 **호흡의 기능**을 다 잃고 죽어 가는 것이라고 현일은 꿈속같이 생각하며 죽은 듯이 었다 있었다.

[A]

얼마 후에 성문 저편에 자동차가 멎고 병수가 돌아왔다.
 운전수의 손을 빌려서 도영이를 차에 싣고 떠났다. 죽은 듯한 도영이를 무릎 위에 누이고 현일은 차 한편 모퉁이에 기대었다. 눈도 뜰 수 없이 피곤하였다.
 ㉠ 운전대에 앉아서 돌아보는 병수는 '이런 더러운 피에 왜 손을 적시려나' 한 선생의 말을 생각하였다.
 - 최명익, 「페어인」 -
 * 빼여지는: 빗나가는.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병수는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현일에게 하고 후회했다.
- ② 병수는 병이 발작해 쓰러진 도영을 위해 자동차를 타고 돌아왔다.
- ③ 현일은 병수와의 만남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 우울함을 느꼈다.
- ④ 병수는 실생활에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창 생활을 오래 하겠다고 말했다.
- ⑤ 현일은 자신의 말에 대한 병수의 비판을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여겨 불쾌함을 느꼈다.

32.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내적 독백을 제시하면서 인물의 내면 의식을 진술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전개와 필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④ 관찰자의 시점에서 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물의 행적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33.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활동을 통해 [페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페어는 물속에서도 물에서도 호흡하는 물고기입니다. 페어와 관련하여 형성될 수 있는 물속과 물, 물과 공기의 대조적 의미 관계는 이 작품에서 '현일'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페어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 ① 페어가 '두 가지 호흡의 기능'을 모두 잃고 죽어 가는 것은 현일이 폐기를 잃은 데다가 절망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 ② 페어가 '반신 물에 잠기고 반신 바람에 불리'는 것은 현일이 낙관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비관적 생각만 하며 살아온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 ③ 페어가 물위로 떠올라 '청징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현일이 인생을 등지고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 ④ 페어가 '마음의 탄력'으로 떠오르는 것은 현일이 현실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심적 안정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 ⑤ 페어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일이 '철학의 지식'을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34.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암울했던 일제 말기에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가 서로에 대해 지녔던 의식과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 속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에게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한편, 그들에 대한 책임 의식과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를 냉소적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외면하지 않고 기성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에서는 현일이 현실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병수의 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에서는 병수가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정신적 태도를 강조하는 현일의 말에 대해 냉소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에서는 현일이 사회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일을 계획하는 데 현일의 마음을 아프게 한 병수의 말이 영향을 주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에서는 현일이 자신의 조연에 대한 병수의 반문과 관련해 자신과 병수를 구분하고 병수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에서는 병수가 자신을 염려해 주는 마음에서 현일이 했던 말의 의미를 헤아려 보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 변동은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이다. 음운 변동 중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경음화가 있는데, 이들은 현대 국어와 15세기 국어에서 적용 양상의 차이가 있다. 우선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다른 하나의 자음이 오면 평파열음인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밖→[박]’, ‘꽃→[꼇]’, ‘잎→[입]’이 그 예이다. 한편 15세기 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ㄱ, ㄷ, ㅂ, ㅅ’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으로, ‘곶→곶’, ‘빋→빋’이 그 예이다. 이는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으로 제한된 것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비음화는 평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국물→[궁물]’, ‘받는다→[반는다]’, ‘입는다→[임는다]’은 현대 국어에서 비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15세기 국어에서 비음화는 현대 국어에서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고, ‘ㄷ’의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노라→문노라’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ㄷ’의 비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한편 15세기 국어에서 비음화는 현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후 실현되기도 했다. ‘붙는다→붙는다→붙는다’, ‘낳는다→낳는다→낳는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ㅌ’, ‘ㅎ’이 ‘ㄷ’으로 바뀐 후 비음화가 실현된 예이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ㅂ’의 비음화는 드물게 확인되고, ‘ㄱ’의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음화는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현대 국어의 경음화에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어간 끝 ‘ㄴ, ㄹ’ 뒤의 경음화, ‘ㄹ’로 끝나는 한자와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ㄹ’ 뒤의 경음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등이 있다. ‘국밥→[국뽕]’, ‘더듬지→[더듬찌]’, ‘발달→[발뽕]’, ‘할 것을→[할꺼슬]’이 그 예이다. 한편 15세기 국어에서는 ‘갈 띠→갈 띠’에서 처럼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의 경음화가 흔히 일어났다.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되나 표기에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한자어에서 유음 뒤의 경음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5세기 국어의 ‘견는다→견는다’는 ‘ㄷ’의 비음화가 일어난 예일 것이다.
 -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의 ‘막-+-노라’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현대 국어의 ‘ㄱ-ㅇ’, ‘ㄷ-ㄴ’, ‘ㅂ-ㅁ’은 동일한 조음 위치의 ‘평파열음-비음’에 해당하는 쌍일 것이다.
 - 15세기 국어의 ‘안-+-계’, ‘곰-+-고’에서는 모두 어미의 평음 ‘ㄱ’이 경음 ‘ㄱ’으로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 15세기 국어의 ‘장-+-노라’, ‘빋+나다’에서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36.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에 들어갈 ‘학생’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다음 제시된 현대 국어 자료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설명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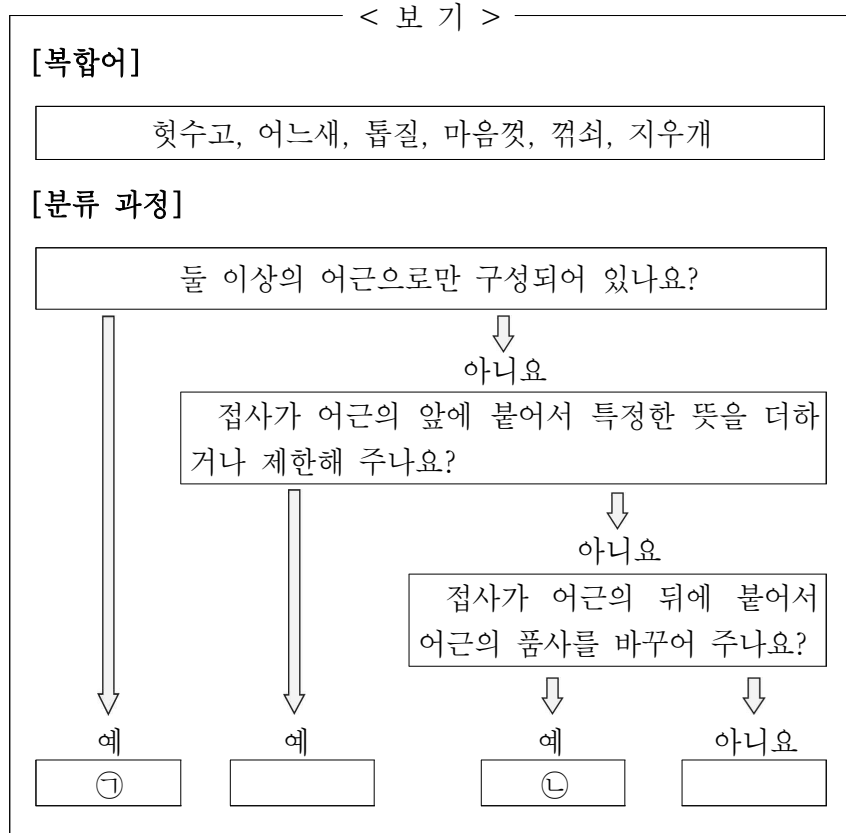
㉠ 겉멋만 → [건면만] ㉡ 꽃식물 → [꼇쌩물]

㉢ 낮잡는 → [낱짚는]

학생: _____ [A] _____

- ㉠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났습니다.
- ㉡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한 번 일어났습니다.
- ㉢, ㉣에서 일어난 경음화는 평파열음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 ㉠과 달리 ㉡, ㉣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습니다.
- ㉣과 달리 ㉠, ㉡에서는 ‘ㄱ’으로 인해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37. <보기>의 ‘복합어’를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 | | |
|---|-------------|----------|
| | ㉠ | ㉡ |
| ① | 어느새, 꺾쇠 | 마음껏, 지우개 |
| ② | 헛수고, 어느새 | 지우개 |
| ③ | 툇질, 꺾쇠 | 헛수고, 마음껏 |
| ④ | 툇질, 마음껏, 꺾쇠 | 헛수고 |
| ⑤ | 어느새, 툇질, 꺾쇠 | 지우개 |

3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어머니는 아들이 비로소 대학생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 파수꾼이 경계 초소에서 본 동물은 늑대는 아니었다.
 ㉢ 감독이 그 선수를 야구부 주장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 ① ㉠에는 안긴문장에 보어가 있고, ㉡에는 안은문장에 보어가 있다.
- ② ㉠은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은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부사어로 사용된다.
- ③ ㉡과 달리 ㉢의 안긴문장의 서술어는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한다.
- ④ ㉢과 달리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은 모두 안긴문장의 주어와 안은문장의 주어가 다르다.

39.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습 활동]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용언의 활용에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다.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을 생각해 보면서 용언의 활용 양상을 설명해 보자.

[예문]

	㉠ 규칙 활용의 예	㉡ 불규칙 활용의 예
㉠	형은 교복을 <u>입어</u> 보았다.	꽃이 <u>아름다워</u> 보였다.
㉡	나는 언니에게 죽을 <u>썩어</u> 주었다.	오빠는 나에게 밥을 <u>떠</u> 주었다.
㉢	누나는 옷을 벽에 <u>걸어</u> 두었다.	삼촌은 눈길을 <u>걸어</u> 집에 갔다.
㉣	동생은 그릇을 <u>씻어</u> 쟁반에 놓았다.	이 다리는 섬과 육지를 <u>이어</u> 주는 역할을 한다.
㉤	우리는 짐을 <u>쌓아</u> 놓았다.	하늘이 <u>파래</u> 예뻐다.

- ①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ㅂ'이 달라졌다.
- ②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ㅌ'가 없어졌다.
- ③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ㄷ'이 달라졌다.
- ④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ㅅ'이 없어졌다.
- ⑤ ㉤: ㉠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ㅎ'과 어미가 모두 없어졌다.

[40~42] (가)는 지역 신문사의 웹 페이지 화면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만든 홍보 인쇄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본문 듣기 SNS로 전달

〇〇군민일보

〇〇군청, 못난이 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개최
(최초 입력 2022.09.16. 09:37:53 / 수정 2022.09.16. 10:12:34)
 김△△ 기자

㉠ 〇〇군청에서 지역에 있는 배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〇〇군청은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〇〇군 배 소비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한 달간 진행되며, 〇〇군 소재 배 재배 농가의 70%가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태풍과 이상 기온 현상으로 〇〇군에서 수확한 배 중 규격 외 배(이하 못난이 배)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 못난이 배는 크기나 모양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흠집이 있어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배를 말한다. 일반 상품과 비교하여 맛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 이것은 판매가 어려워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〇〇군청에서는 일반 배뿐 아니라 못난이 배와 못난이 배로 만든 가공식품의 소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다.

캠페인을 앞두고 〇〇군 내 배 재배 농가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배 재배 농민 최□□ 씨는 "좀 못나도 다 제 자식 같은 배입니다. ㉣ 맛에는 전혀 차이가 없으니 안심하고 못난이 배도 많이 사 주세요."라고 말했다. ㉤ 〇〇군수는 배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처인 '〇〇 온라인 알뜰 장터' 운영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특히 이곳에서는 못난이 배를 일반 상품의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〇〇군 배와 배 가공식품은 특산물 직판장과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 <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 >

😊
좋아요 27

😊!
유용해요 17

😞
슬퍼요 1

🙏
후속 기사 원해요 9

■ 관련된 기사로 바로 가기(클릭)

- 기관지염, 고혈압 등에 효능이 좋은 배
- [현장 스케치] 〇〇군 배 공동 선별 센터 작업 현장에 가다

(나)

좀 못나도 다 제 자식 같은 배입니다. 〇〇군 못난이 배 많이 사 주세요.

맛은 그대로

가격은 절반으로

못난이 배란?
크기나 모양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흠집이 있는 배를 말합니다.

못난이 배를 구입하는 방법
〇〇군 특산물 직판장에 방문하거나

〇〇 온라인 알뜰 장터

🔍

검색해 접속하여 구입

배 가공식품 소개 웹 페이지

40. (가)의 매체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본문 듣기'가 있는 것을 보니, 수용자가 기사의 내용을 음성 언어로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SNS로 전달'이 있는 것을 보니, 수용자가 기사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최초 입력'과 '수정' 시간이 있는 것을 보니, 생산자가 기사를 입력한 이후에도 기사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이 있는 것을 보니,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기사의 유통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관련된 기사로 바로 가기'가 있는 것을 보니, 수용자가 기사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1. (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품의 온라인 판매처를 소개하기 위해, (가)에 언급된 못난이 배의 온라인 판매처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시해야지.
- ② 상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에 언급된 못난이 배의 맛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배의 모양을 활용하여 도안된 그림으로 제시해야지.
- ③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가)에 언급된 배 가공식품을 소개하는 웹 페이지 주소를 QR코드로 제시해야지.
- ④ 상품의 소비를 촉구하기 위해, (가)에 제시된 농민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말풍선의 문구로 제시해야지.
- ⑤ 상품의 의미를 밝혀 주기 위해, (가)에 제시된 못난이 배의 뜻을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해야지.

4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격 조사 '에서'를 활용해 배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가 '○○군청'임을 나타냈다.
- ② ㉡: 연결 어미 '-거나'를 활용해 못난이 배의 판정 기준과 흡집에 관한 내용이 인과적으로 연결됨을 나타냈다.
- ③ ㉢: 지시 대명사 '이것'을 활용해 앞에서 언급한 '일반 상품'을 가리키고 있음을 나타냈다.
- ④ ㉣: 보조사 '도'를 활용해 판매하는 상품이 못난이 배로 한정됨을 나타냈다.
- ⑤ ㉤: 관형사형 어미 '-르'를 활용해 ○○군수가 오래전부터 온라인 알뜰 장터의 운영을 지원해 왔음을 나타냈다.

[43~45] 다음은 안전 교육을 위한 교내 방송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험실 안전 교육을 위해 △△ 안전연구소의 김○○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교육을 잘 듣고 앞으로는 안전한 실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 학교 실험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76%는 학생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먼저 영상을 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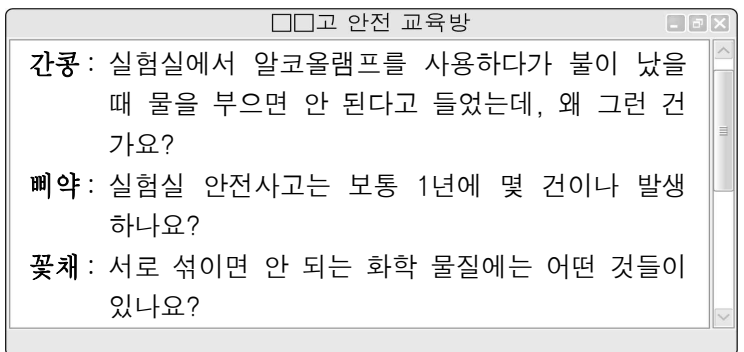


이 영상은 어느 대학 실험실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실험을 하다가 얼굴에 부상을 입은 학생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험복, 보안경, 보호 장갑, 마스크 등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 장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은 실험실에서의 부주의한 행동이 큰 화재로까지 이어진 사례를 보도한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잘 보셨나요? 이 사례는 학생이 실험 중에 서로 섞이면 안 되는 두 화학 물질을 임의로 섞다가 폭발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험실에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것이지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병 안에 든 것은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데,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이라도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실에서는 작은 실수나 방심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험을 할 때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진행자: 알려 주신 내용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럼 안전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학생들의 질문은 채팅방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누리 소통망의 검색창에 '□□고 안전 교육방'을 검색하여 참여해 주세요.



많은 분이 채팅방을 통해 참여하고 계시네요. '간콩' 님이 알코올램프 화재와 관련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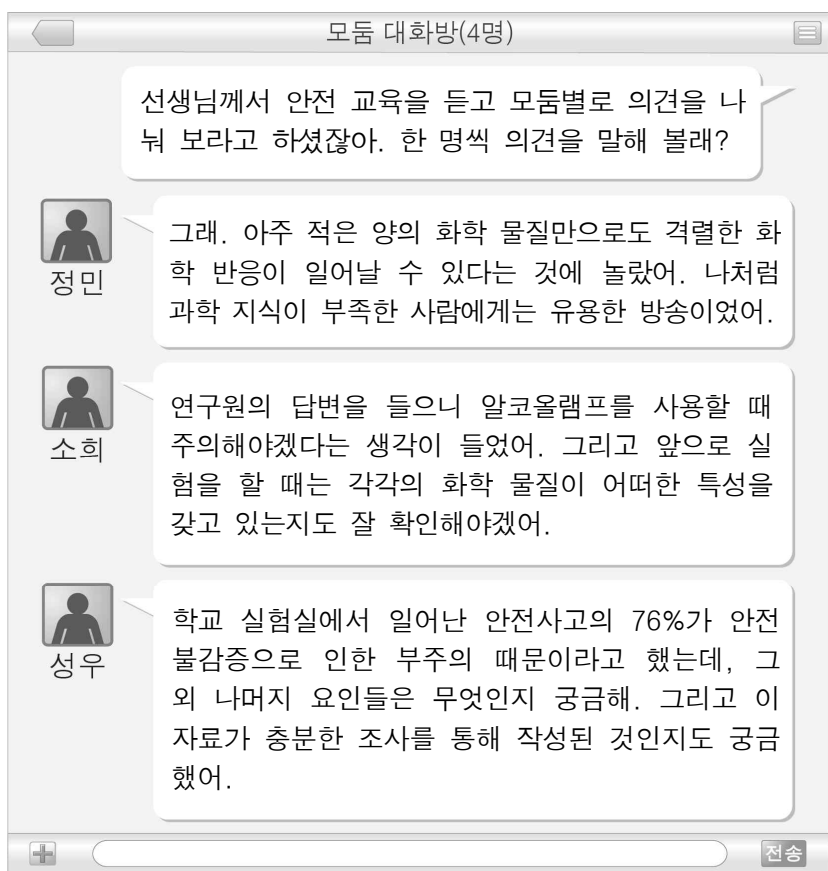
연구원: 불이 붙은 알코올에 물을 부르면 두 물질이 섞여 불이 더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불이 붙으면 모래나 소화기를 이용해서 끄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삐약' 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43. 위 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상 자료를 활용하며 실험실 안전사고의 실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통계 자료를 활용하며 학교 실험실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활용하며 안전사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 ④ 채팅방을 활용하며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진 의문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 ⑤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활용하며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44. 다음은 위 방송을 시청한 학생들이 메신저로 나눈 대화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민'은 연구원이 언급한 사례와 관련하여, 응급 상황에서의 조치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 ② '소희'는 연구원이 답변한 내용과 관련하여, 실험할 때의 유의 사항에 관한 정보가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 ③ '소희'는 연구원이 답변한 내용과 관련하여,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타당한지 점검하였다.
- ④ '성우'는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와 관련하여, 실험실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였다.
- ⑤ '성우'는 연구원이 활용한 자료와 관련하여, 학생을 위주로 한 예방 대책의 장단점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45. 다음은 위 방송을 본 후 과학 실험 동아리 학생이 신입생 교육용으로 만든 발표 자료의 초안이다.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제시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초안>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p>I. 첫 번째 수칙</p> <p>안전 장비를 잘 갖추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험복과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2) 보호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3) 실험실에 비상 샤워기를 설치하세요.
슬라이드 3	슬라이드 4
<p>II. 두 번째 수칙</p> <p>화학 물질을 다룰 때는 주의하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 물질을 함부로 혼합하지 마세요. 2) 화학 물질의 냄새는 직접 맡지 마세요. 3) 실험실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p>III. 세 번째 수칙</p> <p>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알코올램프 관련 화재는 모래나 소화기를 이용해 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 응급 상황 시 정해진 처리 과정에 따라 조치하세요.

<검토 의견>

슬라이드 1	㉠ - 발표 내용에 부합하지 않음.
슬라이드 2	㉡ - 학교에 요청할 사항임.
슬라이드 3	㉢ -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임.
슬라이드 4	㉣ - 다른 슬라이드와 형식이 다름.
	㉤ - 내용과 어울리는 이미지가 필요함.

- ① 슬라이드 1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을 '안전한 실험을 위한 세 가지 수칙'으로 수정해야겠군.
- ② 슬라이드 2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를 삭제해야겠군.
- ③ 슬라이드 3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를 슬라이드 2로 이동해야겠군.
- ④ 슬라이드 4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를 슬라이드 2, 3의 형식과 통일하여 제시해야겠군.
- ⑤ 슬라이드 4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를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미지로 교체해야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